전남창업기술지주, 중기부 벤처투자회사 라이선스 취득

5개 대학·통합특별시 공동 출자…AC·VC 듀얼라이선스
창업 발굴·스케일업 투자…'올스테이지' 지원체계 완성

전남지역대학연합창업기술지주회사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벤처투자회사(VC) 등록을 마치며 액셀러레이터(AC)와 벤처투자회사 자격을 모두 갖춘 '듀얼라이선스' 체제를 구축했다.

9일 전남테크노파크에 따르면 전남창업기술지주회사는 동신대학교와 국립목포대학교, 국립목포해양대학교, 국립순천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등 5개 대학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전남테크노파크를 통해 공동 출자해 설립한 기관이다. 전남광주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출자한 최초의 벤처투자회사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이번 VC 라이선스 취득으로 전남창업기술지주회사는 초기 창업기업 발굴과 보육 중심의 액셀러레이터 역할을 넘어 중·후기 성장기업까지 투자할 수 있는 벤처투자조합 결성과 펀드 운용이 가능해졌다.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별 투자와 후속 투자까지 아우르는 '올스테이지(All-Stage)' 투자 체계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2018년 설립된 전남창업기술지주회사는 지역 대학의 기술과 연구 인프라를 기반으로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해 왔다.

최근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대학을 중심축으로 광주의 AI·반도체·미래모빌리티와 전남의 에너지·바이오·농식품·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연결하는 지역 창업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회사 측은 이번 VC 등록을 계기로 펀드 규모와 투자 범위를 확대하고, 초기 투자 기업이 이른바 '데스밸리(Death Valley)'를 넘어 안정적으로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지역성장펀드 등과 연계한 후속 투자와 대형 투자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테크노파크도 전남창업기술지주회사의 투자 기능과 자체 기업지원 인프라를 연계해 지역기업 성장 지원을 강화한다.

전남테크노파크는 2018년부터 전남창업기술지주회사에 출자해 현재 최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산업 정책기획과 연구개발(R&D), 기술사업화, 시험·실증 인프라 등 기업지원 역량에 AC·VC 투자 기능을 결합해 기업 발굴부터 기술 고도화, 실증, 투자, 후속 성장까지 이어지는 성장사다리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찬희 전남창업기술지주회사 대표이사는 "이번 VC 등록은 지역의 우수 기술이 연구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단순한 투자기관을 넘어 전남광주에서 출발한 스타트업이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파트너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오익현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은 "전남테크노파크의 기업지원 인프라와 전남창업기술지주회사의 AC·VC 투자 역량이 결합되면 기업 성장 전 주기를 지원하는 더욱 촘촘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며 "지역 기술기업이 적기에 투자받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창업기술지주회사는 앞으로 전남테크노파크와 지역 대학, 연구기관, 투자기관 간 협력을 확대해 서남권 딥테크와 지역 특화산업 창업생태계를 이끄는 핵심 투자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전남TP, 21일까지 신청 접수

전남테크노파크는 전남지역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DX)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전남형 스마트공장(기초단계) 보급·확산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업종에 관계없이 전남에 소재한 중소·중견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제조현장의 디지털화와 자동화 설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의 60%를 지방비(도비 30%·시·군비 30%)로 지원해 스마트공장 구축 부담을 낮추고,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통해 기업의 제조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전남테크노파크는 이번 공모를 통해 스마트공장을 처음 구축하는 '기초(최초신청)' 유형과 기존 수준을 유지·고도화하는 '동일수준' 유형 등 2개 분야에서 총 22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21일 오후 5시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세부 지원 내용과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익현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은 "전남형 스마트공장 사업은 지역 제조기업의 생산·품질관리 수준을 높이고 제조현장의 스마트화를 촉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도내 제조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과 광주대학교 기업가정신센터는 지역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2026년 우수 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교육을 마무리하고, 최근 광주대학교 호심기념도서관에서 수료식을 개최했다.

우수 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교육 결실

광주경제일자리재단, 최대 800만원 사업화 지원 착수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이하 광주경제일자리재단)과 광주대학교 기업가정신센터는 지역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2026년 우수 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교육을 마무리하고, 최근 광주대학교 호심기념도서관에서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광주경제일자리재단은 지난 5월 28일부터 F&B를 포함한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 46개사를 대상으로 가맹본부 설립부터 지식재산·계약·매뉴얼·세무 등 가맹사업 전 과정을 다루는 실무 중심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투자 컨설팅(IR 자료 제작·투자유치 전략), 카페 F&B·뷰티 아이템, 브랜딩 디자인(브랜드 전략·네이밍·시각디자인·AI 데이터 분석) 중 자신의 사업에 맞는 트랙을 선택하는 특화 교육으로 교육생별 프랜차이즈화 로드맵을 구체화했다.

광주경제일자리재단은 5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화 지원 사업'에 착수한다. 프랜차이즈 전환 가능성이 높은 우수 사례를 발굴해 업체별 최대 8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분야는 시스템 구축, 시스템 보완, 상품 개발, 디자인 개발, IT 환경 구축, 마케팅 지원 등이다. 오는 18일까지 전남광주특별시 기업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현구 대표이사는 "지역을 대표할 독보적인 우수 프랜차이즈 성공모델을 배출해 낼 수 있도록 든든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혹서기 이동노동자 대상 재해 예방 캠페인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안전용품 지원도

(재)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노사민정 협력의 일환으로 혹서기 이동노동자와 야외 근무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재단은 광주교통공사 1층 이동노동자 쉼터를 찾아 폭염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현장을 오가는 이동노동자들에게 쿨토시·쿨스카프 등 안전용품을 지원했다.

신현구 대표이사는 "폭염 속에서도 현장을 누비며 일하는 이동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이번 캠페인에 함께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동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Lotto 6/45 로또 12 18 21 29 34 38

로또 1등 11명…당첨금 각 24억4000만원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236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2, 18, 21, 29, 34, 38'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0'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1명으로 24억4192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4명으로 각 5330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371명으로 133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6만1927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262만4850명이다. 연합뉴스

초대석

서영교 국제 법제사법위원장

"약자의 눈물 · 억울함 풀어주는 '진짜 민생정치' 펼치겠다"

초대석

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장

"대한민국 첫 통합의회 성공의 길 반드시 열겠다"

지금 이 사람

고잉메리호 최예진 활동가

"웃자고 시작한 하루가 누군가에겐 선물이 됐다"

남도 예술인

정일행 극단 쟁이 대표

"관객이 무대와 함께 호흡하는 공연을 만들고 싶죠"

2026.08 vol. 159 창간 13주년 특집호

세상과 함께, 문화와 함께 광남일보 매거진

전라도人

구독문의:062)370-7080 광고문의:062)370-7070

전남의 보물섬

이달의 이슈

커버스토리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통합특별시 성공… 대한민국 균형발전 새역사 열겠다"

800조 반도체 클러스터 현실화… 연관 · 협력기업 유치

교통 대전환 · '올타' · AI 플랫폼 등 자율주행 메카 조성